

ABS, EU 수출에 무관세 혜택

FTA 체결로 수입관세 6.5% 철폐 ... 자동차·가전용 수요 기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가 EU 수출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통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산 ABS는 유럽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으로 FTA 발효에 따라 EU는 6.5%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2008년 EU 27개 국가가 역외에서 수입한 ABS 3억3400만유로 가운데 한국산은 1억9600만유로에 달해 6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품질에 대해서는 국산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EU FTA 발효로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가격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어 수출 확대가 확실해지고 있다.

특히, ABS는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높은 제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제고는 곧바로 수요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BS는 자동차 부품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부품의 원료로 쓰이며 체코, 슬로바키아 등지에 국내 자동차, 전자기업들이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동유럽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비록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되는 완성차나 가전제품 완제품은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과 상관없이 없지만 부품기업이나 ABS 공급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에도 가격경쟁력이 고스란히 이전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KOTRA 유럽본부는 ABS에 붙는 6.5%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경쟁국인 일본이나 타이완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2-3년 간 슬로바키아에서만 수출이 약 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기업의 ABS 수치 수출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에서는 바이어들이 한국-EU FTA 발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국산 ABS는 역내 수출기업에 비해 납기일이 길고 물류비용, 수입관세 등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나 수입관세가 없어짐으로써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강화하면 유럽시장에서 제3국으로서는 독보적인 수출국 지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5>